

雲門

불기 2570년
여름호
통권 제175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뜨거운 햇살 아래 나는 무엇을 쥐고 불타고 있는가? / 화엄반 정견
- 무더운 여름의 시작, 흐르는 땀방울이 그대로 업을 녹여내는 청량한 감로수가 되기를……. / 화엄반 인성
- 광석이 불을 거쳐 금이 되듯, 일체가 여름의 열기 속에서 스스로를 녹여 부처를 이루리라! / 화엄반 해송
- 더움도 추움도 없는 곳에서 일체 중생 평안하기를 / 사교반 지현
-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함이 모여더니 숨 조이는 열기 막고 여럿 중생 살려내네 / 사교반 승묵
-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고, 단단하되 유연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버티고 견디는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여름철. / 사집반 해수
- 이열차열! 무더위에도 오직 법의 화열! / 사집반 해신
- 문득 돌아보니 어느덧 돌아온 푸르른 계절, 지금 또 여기 / 치문반 경이
- 내가 옳다는 번뇌에서 자유로운 내가 되자. / 치문반 해담
- 작열하는 태양 아래 청산의 푸른 바람을 기다리며. / 치문반 성오

雲門

목차



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쳐다
04	죽림헌	무욕즉강無慾則剛 명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아름다운 해후 일진
08	교수논단	초기대승경전初期大乘經典에 나타난 불신설佛身說 ② 송운
13	학인논단	『원각경』 「보안보살장瞞眼菩薩章」의 이환離幻수행과 대선지법大善地法の 상관성 연구 ① 승묵
17	想	觀 해인
18	외부기고	뜨거워지는 지구, 흔들리는 생태계 그리고 수행자의 길 천도
22	운문, 운문인	녹음방초綠陰芳草 물 향기 짙어지듯 불법도 마음에 가득 드리우기를 편집부
24	산배 탐방	진관사의 세상을 향한 비전 해묵
29	풍경소리	유명幽冥 성오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나의 습첩 지민
32	수행의 두레박 둘	흙에서 찾은 불교 - 산산조각 날 용기에 대하여 - 명주
36	운문인행	대만에서 한국불교를 묻다: 운문사 화엄반의 대만 불교 연수 수행기 해인
40	차례 법문1	불살생, 숨쉬는 존재를 편안하게 하는 삶 인우
43	차례 법문2	통증으로 하는 마음공부 지현
47	이한 권의책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 서현
50	화랑통산	진정한 행복은 지금부터 운문사 바라밀출가학교, 나를 만나는 여정 자윤
52	운문논평	자기중심적 다양성을 뛰어넘어 공감과 이해의 시대로 도약하기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운문사 아미타극락구품도

무욕즉강 無慾則剛

명성 / 운문사 회주



‘무욕즉강無慾則剛, 욕심이 없어야 강하다.’ 『논어』 「공야장」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공자가 ‘나는 이제까지 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누군가 말하길 ‘신정申楨이 있습니다.’

공자가 답하길 ‘신정은 욕심이 있는데 어찌 강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剛하다는 것은 물리적 힘이 세다는 의미보다 심지가 굳어 굽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인 강단을 말합니다.

신정은 공자의 제자로서 성격이 강직해 다른 사람과 논쟁하면 좀처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자가 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신정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공자는 논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신정의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사에 대하여 정이천은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강하지 않고, 강하면 욕심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사랑좌는 ‘강剛과 욕慾은 서로 반대가 된다. 외물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니 항상 만물의 위에 퍼지고, 외물에 의해 가려짐을 욕慾이라 하니 만물의 아래에 굽혀진다.’고 풀었습니다.

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앞에서 사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유형의 물질이든 무형의 마음이든 간에 말입니다. 세간은 재물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명예와 권력 앞에 나약해지며, 애정 앞에 무릎 꿇기 일쑤고, 인정욕구에 망신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붙들려 있는 한 진정으로 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즉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하려는 것에 묶여 있으니 말입니다. 묶임의 결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이기더라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 못하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니

사람 중의 영웅이라 한다.

마음을 단속하고 몸을 길들여

모든 것 털어 버리고 최후의 경지에 이르나니.

[중략]

깨달은 이 부처는 모든 것을 정복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완벽한 승리를 얻지 못했나니

그는 드디어 무한을 정복했다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를,

아아!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겠는가.

「법구경」

그 무엇으로도 유혹할 수 없는 대자유인, 위대한 영웅大雄 그가 바로 우리들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❹

아름다운 해후

일진 / 운문승가대학 읍주

얼마 전 조용하던 운문사 도량에 오랜만에 싱그러운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제 29회 동문회와 동문회장 무영스님의 주관 아래에서 총동문회가 진행한 “운문사 마음ON 원데이 명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운문사 동문 150여 명과 중·고등학생 청소년 108명이 하루를 함께 하며 불교와 사찰에 친숙해지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 행사였습니다. 도량 여기저기서 바쁘게 움직이는 스님들과 호기심과 설렘을 가득 품고 온 아이들 덕분에 운문사 도량이 더 젊고 밝게 느껴졌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텐데도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 모두가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명상을 하기에 앞서 졸업생 스님들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25회 일중스님은 인도에서 20여 년간 초기불교와 팔리어를 수학한 명상 지도자이고, 37회 원영스님은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실만큼 훌륭한 강의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이지요. 두 분 스님들의 특강은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스님들에게도 몹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불교 학교, 대자원 어린이 포교 등 운문사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의 다양한 포교 활동들도 의미가 깊습니다만, 졸업생 동문 스님들이 동참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는 지역 청

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가슴 속에 부처님을 심어주고자 한 뜨거운 열정의 원력이 실현된 장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불교 포교의 부흥에 있어 귀한 시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운문사에 이토록 좋은 행사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명성 회주스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큰 스승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힘과 마음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원영스님의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주스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쓴 편지글을 직접 낭송해 드렸는데, 그 절절한 마음이 이번 행사의 근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내용을 회주스님 뜻에 따라 여기 운문지에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주스님께,

안녕하세요, 스님. 평안하신지요. 37회 졸업생 원영입니다.

여태껏 잡다한 일에 휩쓸려 사느라 찾아뵙지 못하고 편지 한 장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병오년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명분 삼아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신문, 방송 등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좌절할 때, 스님께서는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영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다 챙겨보고 있고 있어요. 잘해요.”

어쩌면 일상의 안부였을지도 모르지만, 제겐 지금껏 크나큰 위로요 힘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싶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전화로 화현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요즘도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앵무새처럼, 머리와 입으로만 지혜와 자비를 떠드는 것은 아닌지 하고요. 제가 감히 스님께서 밟아오신 수행과 교학, 전법, 보살행의 궤적을 고스란히 따를 순 없지만, 고단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항상 강직함을 보여주신 외유내강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가끔은 운문사의 산빛이 그리웁습니다. 아마도 그 그리움은 솔향처럼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윽한 스님의 음성이 산빛 그림자로 드리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닦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제겐 큰 산이자 그늘이 되어주시는 스님. 늘,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37회 졸업생 원영 구배 올림. 4

초기대승경전初期大乘經典에 나타난 불신설佛身說¹⁾ 2

송운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기대승경전初期大乘經典의 불신설佛身說

1. 자비방편신慈悲方便身

2. 진여법신眞如法身

3. 시방변만신十方遍滿身

III. 나가는 말

2. 진여법신眞如法身

『금강경』과 『유마경』에서는 법신을 강조하는 것이 잘 나타난다. 먼저 『금강경』을 살펴보면 본질과 현상적인 불타를 구별하여 육신을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불탑에 모셔진 유골을 불타의 신체라고 생각했던 불탑 숭배자의 신앙을 비판하고, 지혜를 나타내는 반야바라밀이 진실한 불신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법신과 반야바라밀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32상인 신상身相은 법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수보리아 네 생각에 어떠하나, 신상으로써 여래를 볼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써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여래를 보는 것이다.²⁾

형상에서 벗어나야만 여래를 바로 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든 형상은 인연을 따라 잠시 있는 듯하나 허망한 것이며, 그 형상 속에서 형상 아님을 보는 것은 법신이기 때문이다. 즉 제법의 실상에 오고 감이 없듯이 모든 여래 또한 오고 감이 없다고 했다.

수보리아,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래는 어디에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데도 없으므로 여래이다.³⁾

‘여래는 어디에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데도 없

다'라는 것은 여래상이 '구족상(신상)'으로만 존재한다면 분명히 어디서 '온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여래상이 '허무상'으로 존재한다면 역시 어디로 '간 것'이 된다. 즉 여래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므로 구족할 형상도 아니며, 허무한 형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은 이 법성으로부터 나온다. 그 법성은 일체의 명상名相을 초월하였으며 진실하여 잘못됨을 떠나 있다. 그것은 변이하지 않으므로 진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법성진여는 유무·단상·생사·열반·염정·일이·명상 등 일체의 상대를 떠난 경계이다. 법성진여와 유정진여가 둘이 아니며, 염정진여가 곧 생사열반진여이며, 생사열반진여가 곧 일체법진여이다. 제법이 비록 일어나더라도 진여는 부동이며 그것은 마치 허공과 같이 결림이 없으므로 법신이다.⁴⁾

이와 같은 여래의 본질, 즉 반야바라밀이 법신이다. 색신, 곧 육신이었던 형상 있는 것으로서가 아닌 法을 신체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금강경』의 불신관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원시불교의 색신 장엄이 아닌 분명히 법신을 중심으로 한 이신설二身說의 모습이 드러나는 데, 불멸 후 보리의 법을 불신이라고 생각한 법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발전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반야경』은 공·무상의 이치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불신설에 있어서도 공·무상의 법성 내지 법신을 강조할 뿐 아직 법신의 묘유적 측면, 즉 적극적 현현으로서의 불신에 대한 설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유마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견아축불품』 제12에서는 세존께서 유마힐에게 네가 여래를 보고자 하는데 여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스스로 몸의 실상을 보듯이 부처님을 봅니다. 제가 여래를 보니 과거에 온 것도 아니며, 미래에 가는 것도 아니며, 현재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색도 보지 않으며, 색이 여여함도 보지 않으며, 색의 본성도 보지 않습니다. 수·상·행·식도 보지 않으며……삼계에도 있지 않으며, 삼계의 번뇌도 없습니다. 삼해탈문(공·무상·무원)을 따르고, 삼명(숙명·천안·누진)이 구족하며, 무명과 같아 일상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자상도 아니고, 타상도 아닙니다……세존이시여 여래신이 이러하기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고 이와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⁵⁾

여래는 오고 감이 없는 법신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마힐은 대답한다. 또 법신에 이르는 방법으로는 무량한 공덕과 지혜가 갖추어질 때 이루어지므로 여일한 정진을 강조하고 있다.

1) 이 논문은 『한국불교학』 제50호(2008년 2월)에 실린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大正藏』 8, p. 749上.

3) 『大正藏』 8, p. 752中.

4) 『大正藏』 7, p. 937中-下.

5) 『大正藏』 14, pp. 554下-555上.

여래의 몸은 무량한 공덕과 지혜가 갖추어질 때 생기며,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에서 생긴다. 또 계를 지키는 것에서 생기며, 삼매에서 생기며, 지혜에서 생기며, 해탈에서 생기며, 해탈을 자각하는 지혜, 즉 오분법신에서 생긴다. 또 사랑(慈)과 연민(悲)과 기쁨(喜)과 평등한 마음(捨)에서 생기고, 견고한 노력의 선근에서 생기고, 사선정, 팔해탈, 삼삼매, 네 가지 마음의 집중(等持)에서 생기며, 듣는 것과 지혜와 방편에서 생기고, 또 서른일곱 가지의 보리분에서 생기고, 마음의 정적(止)과 명확한 관찰(觀)에서 생긴다. 십력, 사무외, 십팔불공법에서 생긴다. 또 모든 바라밀에서 생기고, 육신통과 지혜(三昧)에서 생긴다.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쌓음에서 생긴다. 또 진리에서 생기고 올바른 곳에서 생기며, 게으르지 앎에서 생긴다. 불신을 얻어 중생의 병을 없애려면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무량한 법이 청정한 여래신·법신·불신이다.⁶⁾

일상에서 집착 없는 한생각에서 무량한 공덕이 되고, 즉 바라밀에서 보리의 법을 중심으로 불신을 나타낸다는 것이며, 불신은 늘 향상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유마경』의 말씀은 결국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는 곳에서 법신이 나온다는 말이며, 심행(心行)의 보시·정진·지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괴로움의 중생신에서 청정한 법신이 되기 위해서는 심행의 정진수행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법

신의 세계로 가려는 수행자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것은 무상·공·무원의 깨우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유마경』은 경전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금강경』보다는 대승적으로 많이 발달한 면을 보인다. 불보살의 불가사의한神通의 세계와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불토도 깨끗하다.'⁷⁾라는 유심정토唯心淨土의 교설도 있고,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 중생의 아픔이 없어지면 나의 아픔도 없다.'라는 동체대비의 교설도 있다.

이러한 불신설은 삼십이상구족상 등의 소승적 생신 불신설을 지양하고, 나고 죽음이 없으며 고통이 없는 대승적 법신불신설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금강경』과 『유마경』에 보이는 불신설의 특징은 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신불신설은 소승적인 생신불신설을 보다 넓은 차원으로 끌어내어 대승불교의 성숙한 불신설을 수립하는 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시방변만신十方遍滿身

대승초기경전 중에서 불신설은 『화엄경』에서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주지하듯이 『화엄경』은 붓다가 설한 경전이 아니다. 불佛 그 자체를, 불의 세계를, 그리고 불로 되는 방법을 설하고 있다.

6) 『大正藏』 14, p. 539中-下.

7) 『大正藏』 14, p. 538下.

그렇다면 불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진여법성의 범신사상이 강조되면서 보편적 진리 그 자체를 범신으로 보고, 시방변만불로서 비로자나불의 광대무변한 자재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시방변만불은 시방제불이 아니라 비로자나불이라는 일불一佛이며, 그 한 부처가 시방에 두루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60화엄』의 서품인 『세간정안품』에서는 붓다가 마갈제국의 실천 도량에서 정각을 성취한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 불은 여래, 혹은 불이라 할 뿐 비로자나불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불은 보현 등 많은 보살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보살들에 대해 “모든 비로자나불은 오랜 세월 착한 벗으로 일체의 공덕 대해를 성취하였다.”⁸⁾라고 하여 바로 비로자나불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사나불품』에서는 품명이 나타내듯이 비로자나불이 중심이 되어 있다. 여기서 무량한 공덕을 수행하여 시방의 부처에게 공양하고 끝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정각을 성취하였다.⁹⁾ 또 그 위력은 법계에 충만하여 여래 범신이 일체 중생의 앞에 무한히 전개된다는 이른바 시방을 두루 비추는 대광명불을 강조한다. 이는 인계因界와 과계果界를 비롯하여 법계가 원만하다는 의미이다.

또 “불신이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 앞에 다 나타나시니, 인연 따라 곳곳에 출현하시어 항상 보리좌에 계신다.”¹⁰⁾ 라는 『여래현상품』의 세계를 들고 있

다. 즉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두루 출현하는 ‘응화불’도 있으며, 항상 거래去來와 동요가 없는 ‘범신불’도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면, 『현수품』 제12에서는 인연 따라 출현한 불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문과 독각도 나타내시며……동남동녀의 형상도 보이며 천신 용왕과 아수라 마후라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좋아함 따라 나타내네. 중생의 형상들 각각 다르고 행업과 음성도 한량이 없으나 이러한 온갖 것 다 나타내니 해인삼매의 위신력이다.¹¹⁾

여래의 해인삼매에 의하여 성문·독각을 비롯하여 아수라·마후라가·동남동녀 등 일체 중생의 모습을 모두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래의 ‘해인대정’에서 끝없는 법계의 일체 형상이 다 장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인삼매는 일체 형상으로 출현해서 일체 공덕을 닦아 중생을 제도하는 위신력이다. 여기에 해인삼매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의 불신설은 이러한 해인삼매에 근거해서 전개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해인삼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불신세계를 탐구하는데 많은 것을 깨우쳐 준다고 하겠다. 해인삼매는 여래의 최상대정이며, 화엄의 총정이므로 삼불원융·십신무애·성취만덕·신변난사의 불덕佛德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한다.

8) 『大正藏』 9, p. 395中.

9) 『大正藏』 9, p. 405下.

10) 『大正藏』 10, p. 30上.

11) 『大正藏』 10, p. 73下.

티끌 같은 마음을 다 알고 큰바다의 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읽을 수 있어도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네.¹²⁾

이와 같은 해인삼매의 세계는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읽을 수 있으나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의 불신설은 십불세계·십신구족의 법신불과 응화불의 현신顯身이었다.

III. 나가는 말

초기대승경전에 나타난 불신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각기 경전에 따라 독특한 구성과 체제가 있듯이 불신설에서도 최상의 이상을 실현하는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시경전에서는 불멸의 진리와 일체가 된 붓다의 위대성을 찬탄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법 중심의 사고가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만족 되지 못하였지만 붓다라는 인격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법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신에 대한 이해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시불교의 불신관은 부파불교에 들어오면서 현실적인 입장보다는 역사적 근거를 중시함에 따라 법신과 색신을 엄격히 구분했다. 생

신生身의 한계성·유루성을 인정하여 진정한 귀의처는 보리법, 즉 법신을 강조하는 상좌·유부계와 종교적 이상에 바탕을 두고 초역사적 존재로서의 이상불을 강조하는 대중부계의 다양한 발전 속에서 초기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법신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무량수경』이나 『법화경』에서는 응화불의 자비방편으로 중생을 섭수하는 구제불사상을 볼 수 있었고, 『금강경』과 『유마경』에서는 무상·공의 입장에서 철저한 법신 중심이었다.

『화엄경』에서는 법신의 묘유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시방세계에 가득한 비로자나불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승경전의 불신설 중에서도 가장 원만한 경지가 될 것이다.

불타의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우주의 모든 존재, 심지어 초목 비정非情에 이르기까지 자타불이自他不二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라 하고, 『금강경』에서는 항상적向上的 불신이라면 『화엄경』에서의 불신은 곧 중생구제를 위한 법신의 적극적인 현현顯現¹³⁾이라고 하는 색신의 자비이타慈悲利他적 바라밀행과 서원이 완성되는 향하문向下門이었다.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 불타의 찬탄을 떠나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불佛, 즉 법신불로의 발전은 대승불교에서 전개된 불신설의 발달 결과로 볼 수 있다. ㉔

12) 『大正藏』 10, p. 444下.

13) 『大正藏』 10, p. 406下.

『원각경』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의 이환離幻수행과 대선지법大善地法の 상관성 연구 ①

승묵 / 사교과(3학년)

목 차

I. 서론

II. 원각圓覺의 정의와 문답적 맥락

1. 함허涵虛와 감산懸山의 주해主解를 통해 본 원각의 정의
2. 문수장·보현장에 나타난 돈오돈증頓悟頓證
3. 보안장의 중하근기中下根機를 위한 점차漸次

III. 『아비달마구사론』의 마음 작용과 무루지無漏智

1. 이환수행과 견지금계
2. 사중계四重戒와 대선지법의 역학적 이환離幻
3. 정념正念을 통한 원각 회통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인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각과 심리적 조율은 인연 조건에 의해 발생한 허망한 환幻의 변주에 불과할 뿐, 궁극적 깨달음인 ‘원각圓覺’의 경지가 아니다. 삶을 꿈이라고 비유한다면 꿈속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꿈이라는 환상 자체를 타파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원각’은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 꿈속의 모든 일이 허망한 환상이었음을 통찰하는 구경의 경지이다. 『원각경圓覺經』 「보안장普眼章」은 이처럼 일체의 현상 경계가 환임을 점차적으로 알아차려 멀리 여의게 하는 ‘이환離幻수행’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선설하고 있다.

이러한 이환수행의 전개는 인과업보因果業

報의 연기緣起적 당위성, 즉 과거 일곱 부처님이 천명하신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의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諸惡莫作 衆善奉行”는 사상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악업을 멈추고 일상 속에서 선업을 수지하는 것은 고통을 조복하고 심신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구경의 수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구사론』의 ‘심소법心所法’체계에서는 이처럼 선업을 일으키는 청정한 마음의 작용을 ‘대선지법大善地法’이라 정의한다. 찰나마다 생멸하는 일상의 미세한 선념善念들이 상속되어 임계점을 넘을 때 비로소 하나의 견고한 대선지법이 확립되며, 이는 중생의 심상속心相續을 외적 번뇌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

제가 된다. 이는 마치 작은 물고기 떼가 천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원리와 같다. 이는 대선지법의 심소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사소한 선념들이 찰나찰나 쌓여서 임계점을 넘을 때, 비로소 하나의 견고한 구조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원각경圓覺經』 「보안장普眼章」에서는 이러한 이환수행의 구체적 방법 가운데 ‘견고하게 나쁜 행위를 금하는 계율을 지키는 견지금계堅持禁戒’ 제시한다. 구경의 무위無爲적 원각에 이르기 위해 번뇌를 청정하고 선한 업으로 끊임없이 대체해 나가는 과정은 중하근기中下根機 중생들에게 가장 유효한 실천적 방법이 된다. 이에 본고는 「보안장」의 ‘환을 여의는 이환수행離幻修行’을 바탕하여 아비달마 교학의 대선지법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원각의 청정함으로 수렴되는 교학적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원각圓覺의 정의와 문답적 맥락

1. 함허涵虛와 감산憨山の 주해註解를 통해 본 원각의 정의

『원각경圓覺經』의 궁극적 지향점인 원각圓覺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스님의 주해를 인용해보고자 한다. ‘원각’은 무명의 결박에서 벗어난 최청정각最清淨覺¹⁾으로 오직 부처님만이 이에 해당하므로 ‘위없는 법왕法王이 대다라니문大陀羅尼門이 있으니 이름이 원각이다.’²⁾라고 하였다. 또 ‘오悟·수修·증證·화化를 거쳐서 극에 도달한 것이 부처님의 원각이다.’³⁾라고 하였다. 즉, 함허 주해의 원각이란 중생의 미혹함과 무명의 결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최종적 경지이자 깨닫고(悟), 닦고(修), 증득(證)하고, 교화(化)하는 모든 수행의 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최종 극치極致의 자리를 의미한다.

이어서 감산덕청憨山德清(1546~1623)스님은 원각을 다라니문의 관점에서 더 확장하여 설명한다. 다라니陀羅尼는 번역하여 총지聽持라고 하는데, 이는 일체법을 총괄하면서 무량한 뜻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원각은 현상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십법계 대총상법문체十法界大總相法門體’로서, 모든 성인과 범부의 의依, 정正, 미迷, 오悟, 인因, 과果가 원각 일심一心에 의지하여 건립된다. 모든 법을 남김없이 갖추고 있기에 ‘총總’이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인과적 질서가 조금도 어긋나거나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持’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각이란 현상세계의 모든 차별을 초월한 ‘완전한(圓) 깨달음(覺)’의 자리이다. 경전의 흐름에 따르면, 일체 여래는 이 원각이라는 대다라니문大陀羅尼門을 근거로 삼아 청정한 진

1) 번뇌와 미망이 완전히 사라진 ‘가장 맑고 깨끗한 궁극의 깨달음’, 혹은 이를 성취한 부처님을 뜻함.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청정한 마음의 본성

2) “無上法王，有大陀羅尼門，名爲圓覺。”『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설의』 上

3) “故知歷悟修證化而無所不極者，是佛所有之圓覺也。”『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설의』 上

여眞如와 보리, 열반, 바라밀을 유출하며 보살들을 이끌어 가르친다. 나아가 일체 중생이 지어내는 갖가지 허망한 환상 역시 본질적으로는 여래의 원각묘심圓覺妙心⁴⁾에 의지해 일어나는 것일 뿐이기에, 여러 수행을 통해 그 허상이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원각묘심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원각의 ‘불변하는 청정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환수행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형성 흐름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문수장 · 보현장에 나타난 돈오돈증頓悟頓證

보안장의 점차적 방편을 고찰하기에 앞서, 보안장 앞의 문수장과 보현장의 문답을 통해 이환수행의 필연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문수보살은 부처를 이루게 하는 첫 발심과 그 발심이 ‘허공꽃(공화空華)’과 같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청했다. 이에 여래는 ‘인지발심因地發心’과 ‘여환삼매如幻三昧’로 답하였다. 즉, 허공꽃이 본래 공소함을 자각하면 신심身心은 물론 윤회까지도 본래 실재하지 않는 환상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보현장의 질문은 더욱 구체적인 수행론적 모순을 지적한다. 모든 것이 환이라면 환상이 사라질 때 마음조차 소멸할 터인데 대체 누가 수행을 하며, 환상인 마음으로 환의 경계를 닦는다면 어떻게 환 속에서 환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 여래는 ‘두 나무를 비벼

불을 내는 양목兩木의 비유’와 함께 “환인 줄 알면 곧 떠나니 방편 지을 것이 없고,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가 없다(知幻即離 不作方便 離幻即覺 亦無漸次).”라는 요의를 설파한다. 두 나무의 비유는 번뇌의 환으로써 보리의 환을 내어 환을 소멸시키는 지혜가 나타나는 역학, 즉 환안에서의 자각을 의미한다. 청정한 원각의 세계에서는 본래 깨달음과 미혹의 대립이 없으나, 중생이 머무는 환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자각은 수행의 방편이자 지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인 줄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환을 떠난 것이므로 인위적인 방편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환에서 깨어나는 즉시 원각의 당체이므로 본래 점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돈오돈증의 선언이다.

3. 「보안장」의 중하근기中下根機를 위한 점차漸次

중생의 현실은 생각을 끊으려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병통이 있다. 이에 보안보살은 중하근기 중생을 위해 환에서 떠날 수 있는 구체적 방편을 거듭 청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머물러 지녀야 합니까? 중생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어떤 방편을 써서 널리 깨닫게 해야 합니까?”⁵⁾ 이는 앞선 보현장의 무점차無漸次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유루有漏’⁶⁾의 세계에서 수행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상세한 점차를 묻는 질문이다. 수행을 처음 시작

4)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마음 (진여자성, 불성, 자성, 본래면목)

5) 云何思惟 云何住持 衆生未悟 作何方便 普令開悟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1권

6) 산스크리트 사스라비(sāsrava)를 번역한 말이다. 번뇌가 없는 무루無漏에 상대되는 말이다. 여기서 누漏는 누설漏泄이란 말로 번뇌를 의미한다.

하는 초심자와 말세 중생이 대승의 가르침에 입문할 수 있도록 가설假設된 방안을 청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함허스님의 주해를 보면, ‘먼 길도 첫걸음에서부터 시작하듯, 보살의 만행은 관문觀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첫걸음이 바르지 못하면 곧 걸음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어 올바른 목적에 이를 수 없으니, 바른길을 가지 않으면 도과道果를 증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안보살이 정관正觀을 개시開示하여 미혹한 중생들이 바른길을 따라 보소寶所에 도달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현재와 미래의 수행자들을 위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다. ‘정방편正方便, 정사유正思惟’가 곧 ‘정관正觀’이니 이 정관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설하심을 듣고서 보살의 여환삼매如幻三昧인 방편점차方便漸次를 수습하더라도 잘 몰라서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원각에 들어가지 못한다.’⁷⁾고 하였다.

이어서 감산스님의 주해를 보면 ‘말세중생은 상상근上上根이 드물고 중하근中下根이 많아서, 수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사를 헤맨다. 수행을 하더라도 바른 방편이 없으면 제대로 입문하지 못하고 점차가 없다면 돈오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문수장과 보현장에서는 일심一心을 돈오하면서 그 즉시 돈증하니, 돈오돈증頓悟頓證⁸⁾이므로 수행하는 과정이 아예 없고 다만 ‘알지知’ 하나뿐이다. 비유하자면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면 깨어난 그 상태로 꿈은 사라진다. 깨어남에 방편이랄게 없기 때문에 상상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세중생의 근기는 상상근이 드물고

중하근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보안보살은 부처님께 가설하여 주시길 청한 것이다. 원래 방편이라고 할 것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 방편을 마련하기 때문에 가설假設이라고 하였다.

Ⅲ. 『구사론』의 대지법·대선지법과 무루지無漏智

1. 이환離幻수행과 견지금계堅持禁戒

1) 이환수행과 심소 체계 비교의 필요성

아비달마 교학과 함허와 감산의 주해를 바탕으로 서로 비교하여 설명한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아비달마 불교 연구의 권위자인 권오민의 연구에 따르면, 『아비달마구사론 阿毘達磨俱舍論』이 지향하는 구경적 목표는 본질적으로 ‘무루지無漏智’의 획득에 있다. 무루의 지혜는 언어적 사유를 초월한 깨달음으로서, 『원각경』의 구경지인 ‘원각’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무루의 실상을 중생이 점차적으로 관찰하고 수습하게 하기 위해, 유루有漏의 세간 지혜에 기반한 분석 교학으로 대선지법을 비롯한 아비달마 체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승의 이환수행법에 아비달마 심소 체계를 서로 비교한 것은, 범부인 중생이 원각(무루지)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점차적 방편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다음호에 계속)

7) 『所謂正方便正思惟者, 即所謂正觀也. 無此正觀則離聞佛說, 修習菩薩如幻三昧方便漸次, 心生迷悶, 不能悟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설의』 上

8) 『奈何末世眾生, 上上根者少, 若不假修行, 必難悟入. 若不假方便, 不能造修, 故此首問修行以求方便漸次之法也.』 『원각경적해』 1권



삼화_1학년 해인

뜨거워지는 지구, 흔들리는 생태계 그리고 수행자의 길

천도 /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

“올여름은 정말 덥네요.”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온도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체감 되어지는 이상기후, ‘정말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이 되기도 하는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의 더위는 예전의 여름과 사뭇 다르다. 열대야로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길어진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6년 6~8월 계절전망에 따르면, 북반구 중저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도 높은 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더위와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는 기후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기후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난이 아니다. 지구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산불은 거대해지고, 바다는 뜨거워지고, 수많은 생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다. 끝없는 성장과 개발, 과잉 소비와 경쟁을 당연하게 여겨온 현대문명이 만들어낸 결과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살아가려 했던 욕망의 질주 끝에서 지구는 점점



천도스님_ 환경운동가

-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
- 통도사 영축환경위원
- 울주경찰서 경승실장
- 울산광역시 교육청 환경 자문위원

뜨거워지고, 하루에도 수백종의 생물들은 사라져가고 있다. 생물종 다양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다음, 다음의 멸종위기종은 인간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환경문제를 거대한 이야기로 생각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아마존에 불이 나고, 어느 나라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기후난민을 만들기도 한다. 너무 크고 먼 이야기라서 내 삶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여름밤을 보내고, 갑작스러운 폭우에 발길이 묶이고, 계절마다 피던 꽃이 제때 피지 않아서 흔하게 먹던 먹거리들이 식탁에서 귀하게 될 때 문득 깨닫게 된다. 기후위기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대한불교조계종은 기후위기 시대의 불자행동으로 네 가지 환경의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환, 지족, 순환, 참여. 단순한 환경 캠페인의 구호가 아니라, 수행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수행적 제안이다.



첫째, 전환轉換

지금의 탄소문명과 과잉소비

의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이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멈출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끝없는 개발과 소비의 속도를 늦추고, 생명과 공존의 가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적 전환이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입고 쓰고 버리며 살아간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수행자는 자신의 소비와 욕망을 돌아보아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편리함을 위해 당연하게 사용해 온 것들을 성찰하는 일 또한 수행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날 수행자가 실천해야 할 대전환이다.

둘째, 지족知足

불교는 오래전부터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왔다. 『법구경』에서는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한 『법구경』 「불타품」에서는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끊임없

이 부족함을 채우라고 자극한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소비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그리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불안하고, 넘쳐나는 물건 속에서도 결핍을 느낀다. 소욕지족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생태적 실천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로 욕심을 비우고 마음은 풍요로운 불자가 되자.

셋째, 순환循環

자연에는 버리는 것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흙과 물과 공기로 돌아가고, 다시 생명으로 이어진다.

불교의 순환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세계관에서 시작한다. 내가 무심코 버린 하나의 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를 떠돌아 결국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의 밥상 위로 올라오거나 혹은 다른 생명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연기緣起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질 뿐이다. 그래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추구하고 있는 편리함을 조금씩 양보하는 일에 가깝다. 환경운동은 무엇을 할까? 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멈출까? 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종이컵 하나를 덜 쓰고, 포장 하나를 거절하고, 습관처럼 뽑아 쓰는 비닐 대신 잠시 멈추고 바꾸는 것. 그 순간의 멈춤이 탐욕을 내려놓는 수행이 되고,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 된다. 반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자원을 다시 살려 쓰며,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생명의 순환에 참여하는 일이다. 사찰에서의 순환은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불살생의 실천이며, 연기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수행이다.

넷째, 참여參與

환경문제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 한 사찰의 변화, 한 공동체의 발원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불교는 세상과 등을 지는 종교가 아니라 고통

받는 생명 걸으로 걸어가는 자비보살행의 종교이다. 나 하나쯤이 바뀌어서 이웃과 세상이 바뀐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환경운동은 상대를 배려하는 자비행이며, 생명을 살리는 보살행이다. 수행자는 산중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여야 한다.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사라져가는 생명들, 병들어가는 강과 바다의 아픔 앞에 응답하는 것 또한 수행자의 역할일 것이다. 이웃 종교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경운동을 수행하는 스님들의 숫자는 희소하다. 나는 늘 한 사람의 백 걸음 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이 위대함을 믿는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일인지도 모른다. 현대문명은 끊임없이 더 빠르게 살 것을 요구하지만, 수행은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 그늘 아래 머물며,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생명과 인연이 있었음을 관하는 일. 그러한 마음공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과 공존하는 삶의 감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더 편리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이 연대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전환과 지족, 순환과 참여를 토대로 만들어진 불자 환경5계¹⁾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수행이다. 지구를 살리는 일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생명의 아픔에 무심하지 않는 일, 덜 소비하고, 덜 버리며, 더 깊이 감사하는 생활 속 수행으로 위기의 시대에 보살행을 꽃 피우길 발원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 ❹

1) 불자 환경5계

1. 천지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생명임을 알아 존중하며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2. 경쟁 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3. 많은 것, 빠른 것보다 적고 적은 것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겠습니다.
4. 깨끗함, 편리함이 마음의 분별인 줄 알아 적당히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다.
5.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스승의 날이니 사랑 나눠줄게요."
회주스님 눈에는 여전히 아이 같은 대중 스님들



보들보들 어린 쑥 캐기 도란도란 웃음 나누기

녹음방초 綠陰芳草

풀 향기 짙어지듯

불법도 마음에 가득 드리우기를 편집부



열암곡 부처님께서 바로 서서
온누리에 광명 비출 그날을 위해~



선명상 수업에 오신
모두들 환영합니다~



보기 좋은 진달래가 먹기도 좋구나



발우에 담긴 마음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발걸음을 옮겼던 대중자비탁발



세상의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경건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금강경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상양볼 소리



청명한 하늘과 푸른 자연을 벗 삼아 아이들과 함께 마음 보기



경주 남산에서 단오 기운 한껏 받고 온 화엄반



즐거운 여름불교학교를 위해서 철저한 리하설은 필수!

진관사의 세상을 향한 비전

해묵 / 대교과 (4학년)

2026년 현재, 진관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빈 사찰’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역사와 원력이 흐르고 있을까? 그 원력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았다.

서울역에서 버스로 40분. 한적한 가운데 아기자기한 한옥마을이 북한산을 배경으로 늘어서 있었다. 화창한 봄 햇살을 따라 마을 길로 올라가자 마치 ‘전통과 현대의 조화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듯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 이르렀다. 한옥의 정서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세상에 다가가는 종교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일주문에 들어서자 전통 사찰의 편안함과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사들로 활기가 느껴졌다. 봉사자분들과 직원분들의 합장 인사와 밝은 미소에서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공양간에서는 운문사 선배 스님들이 우리를 몹시 반기시며 ‘그때 나의 강원 시절’ 이야기로 꽃을 피우셨다. 공양 후에 주지 범해스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흔들림 없는 또렷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계셨다.

● 스님께서는 운문사 28회 졸업생이십니다. 간략하게 스님께서 출가하시고부터의 여정과 운문사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출가한 지는 이제 43년째예요. 저는 은혜사에서 불교 학생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출가를 결심했어요. 진관사에 있다가 운문사를 가게 되었지요. 지금 학인 스님들은 빨리 졸업하고 싶겠지만(웃음) 내가 출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활은 운문사 시절이에요. 그곳 생활은 내 삶과 수행의 근간根幹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자연조건과 훌륭한 명성 회주스님이 계신 곳이에요. 저는 회주스님의 ‘물물각득기소物物各得其所’와 ‘즉사이진卽

事而眞'이라는 말을 늘 제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수행자란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하는 일이 다 진실하고 수행자답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에요. 여러 강사 스님들, 도반 스님들, 선후배 스님들과 같이 회상會上에서 공부했던 것이 참 기억에 남아요.

● 진관사는 대한민국 포교 제일 1선에 있는 사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진관사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요?

진관사는 크게 세 가지 브랜드로 소개할 수 있어요. 사찰음식, 수륙재, 그리고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에요. 계호 회주스님께서는 1990년대 초부터 사찰음식의 가치를 인식하시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사회적 밥상운동'이라는 것을 펴셨어요. 사찰음식은 '내몸도 살리고 지구도 살린다'는 수행문화예요. 또 늘 "내가 먹는 음식은 곧 나의 몸과 인격이 되고, 몸의 주인은 마음이며, 마음의 스승은 몸이다. 사찰음식의 최고의 양념은 정성이 깃든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수륙재는 하늘과 땅, 이승과 저승을 아울러 유정과 무정, 산자와 망자를 가리지 않고 초대해서 두루 제도하고 베푸는 대자대비 무량 공덕 가피의 법석이에요. 진관사에서는 조선 1397년에 태조가 몸소 진관사에 거동하여서 선대 왕실 조상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 속에서 죽어간 백성들까지 차별 없이 천도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600년 전통으로 매년 10월마다 이

어지고 있어요. 태극기는 2009년에 칠성각을 해체·보수하던 중 발견되었어요. 백초월 큰스님께서 숨겨두신 것인데 1910년 경술국치 庚戌國恥 이후 일장기 위에 태극을 그려 넣은 것이예요. 진관사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요. 이런 역사가 있기에 진관사가 시대와 사회적인 요구에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저는 진관사를 '마음의 정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 풍요로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늘 수행에 집중하면서도 개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소통하고 있어요.



● 스님께서는 이러한 비전을 언제부터 그리셨는지요?

저는 2000년도에 대학원을 가면서부터 '탈 종교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에는 중생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지금 세계적인 정세는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찾지 않고 물질과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야말로 우리 불교가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불교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명산대찰에 마음을 편안하고 지혜롭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최고의 브랜드이자 행복 콘텐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 있는 지혜를 현대적 시스템에 적용해서 '함께 꿈을 꾸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수행자에게는 수행하기 좋은 장소, 종무원에게는 신바람 나는 일터, 불자에게는 훌륭한 귀의처가 되어서 각자의 세상을 즐겁고 향기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마스터플랜을 짜고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답이라는 생각에 저의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했어요. 그 후에는 될 때까지 공을 들였지요. 우리 스님들이 아주 괴로워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웃음).

● 선배 스님으로서 앞으로 운문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다면?

운문사는 원광국사가 나라의 통일을 위해 화랑도와 세속오계를 수련했던 곳이에요. 그 정신을 이은 수행자를 양성하는 도량인 만큼 지금 시대에는 새로운 방향과 사명을 요구받고 있어요.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행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수행의 깊이를 회복해야 해요. 출가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본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실천이에요. 수행과 교학이 갖추어진 공동체를 이루고, 일상 속 습관으로 자신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한다면 운문사는 다시 깊은 울림을 주는 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나에게도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물각득기소'라는 우리 회주스님 말씀처럼 가장 운문사 다운, 운문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해요. 학인 스님들은 경험을 쌓고 강사 스님들도 복력을 늘릴 수 있는 교육이 있지 않을까 해요. 요즘은 체험의 시대거든요. 다 직접 만져보고 해보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았던 50, 60년대에는 외우는 시대였어요. 외우는 시대는 그냥 박제된 거를 그대로 쓰는 거지만 지금 AI 시대는 융합 창조의 시대예요. 그게 불교이고요. '일즉다다즉일 일즉일체다즉일 一即多多即一 一即一切多即一',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들어 있는 화엄경의 사상처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마음을 바꿔야 해요. 대중이 함께 모여서 계속 현안을 끌어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함

게할 수 있어요. 화엄경에 ‘바보가 셋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개인이 회복되고 편안해지는 것이거든요.

● 지금 시대의 학인 스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이라는 것이 내가 그 일이 없으면 내 복력이, 다시 말해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은 하기 싫어” 하는 것은 다 자기 마음에 있어요. 일이 힘든 건 절대 아니에요. 원력이 있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저는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스님께서 어느 날 “얘야, 네가 왜 이러니. 나는 20대 때 두 시간밖에 안 잤어.”라고 하셨어요.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고 부처님은 진리에 능하고 만물에 인자하셔서 법을 전하고 복을 짓게 했어요. 운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 복을 짓고 내 기량을 만들어 가야 해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일이에요. 1초를 자르면 90찰나가 돼요. 천상에서는 찰나를 쪼개서 쓴다 그래요. 찰나를 쪼개서 뭐 하느냐, 공덕을 닦는대요. 복력을 더 쌓아서 성불하려고요. 부처님은 만복구족萬福具足이예요. 내가 이렇게 스님들께 잘해 주고 하는 것도 내 복 쌓으려고 하는 거

예요. 그래서 세상도 향기롭게 하고 사바세계 사람들도 제도하려고요. 구경성불광도중생究竟成佛廣度衆生이예요. 반야바라밀로 구경에 성불해서 광도중생한다고 하잖아요. 세상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부처님 마음을 먹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문명이 너무 급속도로 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하고 정신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요. 사람들은 목



이 마르면 물을 찾듯 자연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AI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자연이 답인 시대가 와요. 불교를 찾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현대 사람들은 다 서양식으로 교육받고 인지하는데 불교 교육은 아직도 동양식으로 하고 있어요. 스님들은 무조건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해야 해요. 우리는 도사導師잖아요? 이끌도導, 삼계대도사三界大導師. 삼계의 스승이 될 존재가 우리예요. 내가 처음 스님이 됐을 때 지도 법사 스님이 “법해야, 너는 이제 남복을 입었고 삭발염의를 했어. 너는 삼계대도사야. 대장부의 마음을 가져라. 여자같이 그런 좁은 소견을 쓰면 안 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귀에 담

아 놓고 살았어요.

강원을 졸업하고는 꼭 천일기도를 하세요. 중이 중스럽지 못한 것은 정진의 힘이 없을 때인데, 그건 앵무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천일기도를 하면 복력이 있어서 공부하는 길과 인연이 달라져요. 진관사는 천일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진관사는 부자 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모욕적이에요. 부자 절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부자지. 시대의 부응에 맞춰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공간을 확장 시키고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33년을 은사스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범해야, 고맙다. 애썼다. 복을 지어라. 복을 지으면 네 살기가 좋고, 네가 지은 복으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산다. 마음을 닦아라.” 하셨어요. ‘복을 지어라’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갑자기 마음을 닦으라 하시니까 ‘우리 스님이 섭섭하신 게 있었나 왜 이 말씀을 하셨지?’ 했어요. 다비를 치러드리고 뒤돌아가만히 ‘마음은 어떻게 닦이는 거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수행정진했을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마음이 닦이고 공덕이 이루어져요. 자신에게 맑고 청정한 여백이 와요. 이것이 마음이 닦이는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스님께서는 당신의 학인 시절과 젊은 수행자 시절이 멋지게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스님의 자그마하고 여러 보이는 치문반 막내 시절 모습에는 친밀감이 듬뿍, 또 홀로 인도로 십만 배 순례를 다니셨을 때의 모습에는 경외감과 존경심이 일었다.

출가하시고부터 단 한순간도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하시던 스님. 진관사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 분, 일 초도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뽐내셨다. 옛 선사들의 말씀과 경전 구절들을 걸림 없이 인용하시는 것을 보고, 원력이란 전통과 고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단단한 수행력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굳건히 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행이란 선정을 닦아 자비심을 발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시켰을 때 완성된다. 선배 스님의 발자취를 보며 앞으로 ‘우리의 자비심은 어떻게 실현시킬까?’라는 질문을 깊이 고민해 본다



유명幽冥

성오 / 사미니과 (1학년)

지장보살을 염하면 새벽이 열린다

지옥중생 다스리겠다던
비사국왕은 염라대왕이 되고
구렁이 된 치씨는 양무제 공덕으로
해탈에 이른다

우린 무슨 연으로 어디서 왔을런가
바랜 지장경을 지극히 독송하던
백발보살 무엇으로 갓을런고

산딸나무 흠파던 아욱이도
지장보살
돌턱에 앉아 보초서는 까마귀도
지장보살

어둠이 가시고 새소리만 고요히 울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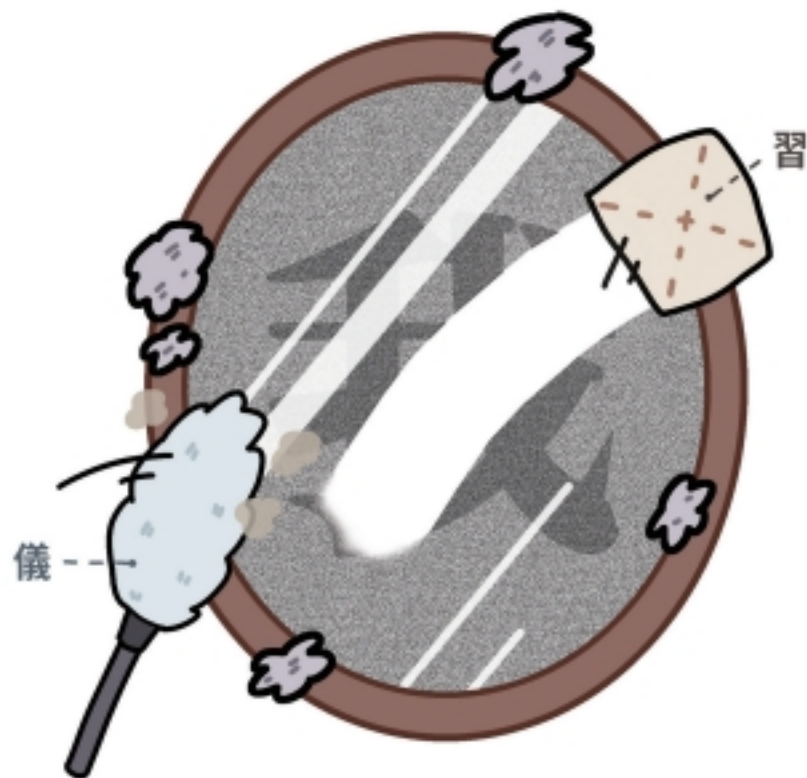


삽화_1학년 경이

나의 습習

지민 / 사미니과 (1학년)

강원에 입학하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습의習儀”라는 단어입니다. 습의는 절의 규범과 수행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나 그 교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절에서만 쓰는 용어인가.’라고 생각하며 무심하게 지나쳤었는데, 문득 어느 날 이 두 글자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화_1학년 필제

습習은 ‘익히다, 익숙하다’란 뜻이고, 의儀는 ‘거동, 예절’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상반 스님들께 받았던 수많은 습의들은, 저의 기본 습관을 바꾸어서 제 몸과 마음이 모두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기초 교육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가 전 가졌던 나쁜 습관 중 하나는, 아침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잠이 잘 깨지 않아서 머릿속이 멍한 상태로 학교와 회사에 갔고, 8시쯤 첫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도 말 한마디 꺼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출가 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예불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량석을 준비할 때는 4시 이전에 일어나기도 하고, 큰소리로 창불참佛을 하고 법고를 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새벽예불 시간은 제게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경건한 신심이 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아직도 도량석과 창불을 해야 할 때면 여전히 많이 긴장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 인생의 변화를 주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강원의 습의입니다. 습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가장 먼저 배운 습의는 “합장 저두”입니다. 멀리서 회색 옷이 보이면 일단 합장 저두를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의 인사를 못 보신 것 같다면,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자 관계의 시작이라는 배움을 떠올리며 오늘도 열심히 합장 저두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배운 것은 “차수”입니다. 들뜬 마음을 모으고 몸을 단정히 하여 수행에 집중하게 만드는 손의 자세로, 몸 앞으로 두 손을 가볍게 포개어 쥐는 것을 배웠습니다. 차수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무엇을 해도 어설픈 치문반이지만, 저도 언젠가는 스님의 위의威儀를 갖추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차수를 하며 운문사의 넓은 도량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어른 스님께서 저에게, “도반의 모습을 잘 보면,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업중생同業衆生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도반은 도반이고, 나는 나인데 어떻게 남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본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옆의 도반들을 바라보다 보면, 자꾸만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반들의 말이나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저에게도 있는 습관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치는 모습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반들에게서 제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의 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부끄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이런 멋진 점이 있었다니!’ 하며 스스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나의 행동 방식이면서, 곧 이번 생의 나의 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읽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작은 습관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변화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강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그 중에서도 습의를 먼저 익히는 것은 저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동안의 좋지 않은 습관들은 버리고, 당당한 수행자의 습관을 새로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저는 지금 한 명의 어엿한 출가자로서 이 순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❷

흙에서 찾은 불교 - 산산조각 날 용기에 대하여 -

명주 / 대교과 (4학년)



도자기는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작자가 직접 그 재료를 손으로 만지고 감각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그러합니다. 꼬막밀기를 할 때 손바닥에 느껴지는 흙의 수분 감이나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흙의 두께와 질감을 손끝으로 잘 감각하지 않으면 그 도자기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감각'이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감각을 수용함에 있어 깊이와 세밀함이 생기지만,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감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다루고 대해야 할까요? 불교는 마음을 닦고 조복시키는 데에 있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와 불교 교리를 연관 지어 살펴보고, 예술적 영감을 넓히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흙은 고정된 형태 없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흙은 막사발과 같은 단순한 형태부터 조소, 조형 같은 복잡한 형태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궁무진하니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겠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도자기는 한 명의 도공이 빚어 만들더라도 모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석고로 본을 떠서 같은 모양을 찍어내더라도 그 결과물이 완벽히 같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역시 흙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고정된 형태가 있어 언제 한 번이라도 똑같았던 적이 있나요? 영화 속 한 장면이나 노래 가사 한 줄에 인생을 구원받는 느낌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히거나 질리기 마련이고, 그 토록 싫어하던 사람도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눈 녹듯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삼법인三法印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법

인은 부처님께서 설한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은 모든 형성된 현상에는 영원하거나 상주하는 것이 없고, 항상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是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독립적인 고유한 실체로서의 ‘나’가 없음을 뜻합니다. 일체개고一切皆苦는 세상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다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은 곧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생김을 뜻합니다. 삼범인의 도리는 결국 모든 것이 공조함을 드러냅니다. 만물이 공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양한 생성과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600부 반야경의 핵심 사상인 진공묘유眞空妙有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는 흙을 다룰 때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도자기는 시작과 끝이 없는 인연의 흐름에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잘 관찰 해보십시오. 그 변화 가운데에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아름다움, 추함, 기쁨, 슬픔 등 각자의 시선에 따라 보이는 것은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흙이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바꿔야 비로소 새로운 도자기로 태어날 수 있듯, 사람도 역시 마음속 고정관념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흙을 마주하는 모든 시간이 자신을 비워가는 고요한 자기성찰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수화풍 사대를 이용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는 지수화풍이 모두 필요합니다. 지대地大 무엇인가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는 성질이고, 인간의 육신으로 따지면 뼈, 살과 같이 몸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질 덕분에 도자기는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대水大는 피, 고름, 눈물 등의 액체에 해당합니다. 흙 입자 사이를 연결하여 찰기를 부여해 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수대’의 역할입니다. 원하는 모습으로 형태를 만드는 행위는 ‘풍대風大’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대는 물질이 팽창하거나 이동하게 하는 등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성질입니다. 도자기로는 사람의 손길, 물레 등의 외부적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화대火大는 따뜻하거나 차가운 성질로 바꾸거나 물질을 성숙시키고 소화시키는 열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마치 어린아이의 작고 통통한 손이 길쭉한 어른의 손이 되고, 쪼글쪼글한 노인의 손이 되어가는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250°C 이상의 불로 구워 흙을 도자기로 바꾸는 작업이 곧 화대입니다.

이렇듯 사대가 모일 수 있는 인연이 없다면 절대로 도자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연’은 무엇일까요? 인연은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줄임말입니다. 인과 연이 합쳐져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멀하면 저것도 멀한다.

하나의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모여 잠시 형상을 갖추고 있으나, 인연이 다해 깨어지면 다시 흙으로, 물로, 바람으로, 불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자기를 볼 때마다 한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뜨거운 가마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도자기가 완성되듯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고서야 태어납니다. 이렇듯 생과 사의 흐름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변화이지요. 도자기의 영속과 파괴가 결국 하나의 순환인 것처럼 우리 삶 또한 거대한 연기緣起의 흐름 속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치 잘 구워진 도자기처럼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자기의 불변성不變性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충남 태안군 마도 앞바다의 해저에서는 고려시대 조운선 3척과 조선시대 선박 1척이 발견된 적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여러 청자 유물들은 그 형태와 빛깔을 거의 유지한 채 발견되었는데요. 이처럼 도자기는 유약을 발라 한번 유리화琉璃化 되면 웬만해서 그 색과 형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오래 가고 튼튼한 성질의 물건이 많아 이 특징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쇠는 녹슬고 나무는 썩습니다. 그냥 흙은 녹거나 부서지겠지만 도자기는 오랜 시간 그 반짝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자성自性입니다. 자성은 곧 불성佛性 또는 여래장如來藏으로 설명되며,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뜻합니다. 이를 잘 표현한 조주화상의 계송 한 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부처님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님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부처님은 물을 건너지 못하나
참된 부처님은 내 안에 앉아 계시네.

맹렬한 불길을 건넌 후 바깥의 첫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컷가를 울리는 청아한 금속성의 빙렬氷裂 소리는 도자기의 첫 울음이라고도 하지요. 마치 우리 마음속의 밝고 명징한 자성 같지 않나요? 작품을 가마에서 꺼낸 뒤 열이 식으며 천천히 그 맑은 빛이 드러나는 순간을 찬찬히 음미해 보십시오. 도자기의 매끄러운 표면 위에 먼지가 앉을 수 없듯, 우리 안의 불성 또한 언제나 깨끗하게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맑은 시선으로 자신 안의 참 주인공과 마주하는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도자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도자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도자기는 깨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답게 잘 만든 것이라도, 도자기라면 반드시 깨진다는 성질을 품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듯, 빈뇌가 없으면 부처도 있지 아니하듯 깨지지 않는 도자기는 도자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도자기는 깨질 것을 알기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질 것이 두려워 모셔놓기만 하면 도자기는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우리는 돈, 명예, 사랑 등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나'를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지요. 불교는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나' 또한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때가 되면 인연이 모여 생겼다가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기에 집착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정호승 시인은 '산산조각'이라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도자기가 언젠가 깨지듯 우리의 삶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끝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비로소 집착이 일으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편마저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산산조각 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❷



대만에서 한국불교를 묻다: 운문사 화엄반의 대만 불교 연수 수행기

해인 / 대교과 (4학년)

저희 화엄반은 지난 2026년 5월 12일 7박 8일 동안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대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는 1949년 현대적 재편을 거친 이래 교육과 포교, 수행과 복지, 그리고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한 대만 불교의 원동력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 불교의 현실에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운문사로서는 두 번째 발걸음이기에,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와 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한층 더 간절했습니다.



불광산사 여중학부 학인들과 인사

대만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온몸으로 느낀 것은 불교의 압도적인 '대중성'과 '다양성'이었습니다. 그곳의 사찰은 단순히 기도를 올리는 종교 공간이 아닌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소였습니다. 신도 조직을 중심으로 봉사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삶의 현장 그 자체이고, 신앙은 관념에 머물지 않고 대중의 삶 속에서 실재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만 불교를 지탱하는 4대 종문이 저마다의 방편으로 불법을 펼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간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문화 포교와 국제화를 이끄는 불광산사는 불교를 대중의 언어와 형식으로 풀어내는 체계적인 포교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우리가 다듬어야 할 포교의 언어는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축으로 시선을 압도한 중대선사는 창건주 유각대사의 무문관 수행 정신을 이어받아 참선에 특화된 도량이었습니다. 다만 일정상 내밀한 수행 시스템과 불학원의 교육과정까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외적인 장엄함 이면의 내적인 수행 교육을 더 살필 수 있었다면 학인들에게 더 실질적인 배움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은, 다음 연수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중대선사 탐방

반면 범고산사는 성엄대사의 가르침 아래 참선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행과 생활의 일치를 중시해 온 한국 불교의 전통과 맥이 닿아 있어 친숙하면서도 매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대학과 승가대학을 병행하며 경전과 참선 과정을 명확히 분리하고 『육조단경』을 정규 과정에 편성하는 등 참선 교육을 체계화한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선불교 국가를 자임하면서도 정작 강원 과정에서 참선에 대한 교육 없이 졸업 후에 선방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자제공덕회에서 목격한 ‘자비의 제도화’는 명성 회주스님께서 왜 꼭 가보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비라는 추상적인 마음가짐이 의료, 교육, 구호, 환경 등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현장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속에서 무거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얼마나 구체적인 제도로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신도들의 신심은 사찰 마당 안에만 갇혀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힘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불교의 복지와 사회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대승의 자비를 이 땅에 구현하는 필수적인 방편임을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덕사 불학원 간담회

이번 연수의 정점은 의덕사 불학원 참방이었습니다. 대만 비구니 승가의 계율 전통을 구체적으로 마주한 그곳에서, 우리는 계단戒壇이 단순한 의례 공간이 아니라 수계자가 청정한 계체를 받고 출가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확립하는 엄숙한 상징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 받는 비구니

구족계의 엄중함, 삼층 구조와 사방의 계표로 구성된 '감로계단'의 상징성은 계율이 개인의 결심을 넘어 승가 공동체와 법계의 증명 속에서 전승된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지계持戒 정신이 이토록 여범하게 현실화된 모습을 보며, 우리의 공부와 수행이 개인적 성취를 넘어 반드시 중생을 향한 회향과 전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준엄한 자각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7박 8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깨달은 대만 불교의 진정한 힘은 거대한 도량이나 신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율을 소중히 여기고 수행자의 위의威儀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철저한 교육 구조에 있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불교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불교, 그것이 대만의 저력이었습니다.



법고산사 스님들과 기념촬영

연수 초반, 불광산사에 도착했을 때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대만 비구니 스님들의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맑고 성성한 눈빛에는 수행자로서의 길에 한 점의 흔들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개인의 탁월한 수행력이나 신심 덕분이라 생각했으나 그들의 교육 구조와 사찰 생활을 깊이 살펴볼수록, 그 단단함 뒤에는 출가 전부터 수행자의 삶을 긴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사찰과 신도 조직, 교육기관과 봉사활동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출가를 결심하기 전에 이미 수행 공동체의 현실적인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신도와 봉사자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도반으로 성장하며, 일정한 교육을 통해 승가의 운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출가를 선택하든 재가 외호자의 길을 걷든, 모두가 승가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스님의 삶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마음의 평안이나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상적인 발심으로 막연하게 출가를 결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인연 또한 고귀한 발심의 씨앗이지만, 막상 출가 이후 마주하게 되는 엄격하고 고된 행자 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초발심을 다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가 전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체험과 교육 구조가 뒷받침 되어주지 못한다면, 발심을 다져야 할 행자 기간이 도리어 회의감을 키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심은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심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발심은 매일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지지 속에서 계율과 습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단히 갱신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만 비구니 스님들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저희에게 발심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생활 속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만 불교의 훌륭한 체계성과 생활불교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한국 불교의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재발견하는 성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대중 융합과 신도 교육, 국제화 정신은 분명 우리가 수용해야 할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외적 시스템의 단순한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한국 불교가 수백 년간 가꿔 온 선방과 안거 문화, 강원 교육, 그리고 산중 도량의 고요한 수행 분위기와 대중 생활과 같은 수행 전통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불교의 타버린 새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광산사 성운대사님께서 처음 대만에 오셔서 언어소통이 안 되는 3년 간 이 말씀을 되새기며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나는 봄을 기다리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새싹인가, 이미 꺼져버린 불씨인가. 또한 나는 자라나는 새싹을 잘 보호하고 자양하고 있는가. 현 시점에서 이는 단순히 개인의 화두가 아니라 전 불교계의 화두가 아닐까요.



세계 불교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확인하고 국제적 연대의 시급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열어주신 백천문화재단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대만 땅에서 얻은 이 뜨거운 배움과 서원이 일회성 감상으로 휘발되지 않도록, 돌아온 운문사에서 학인 생활과 향후 마주할 모든 수행과 전법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화두로 삼아 지극하게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



불살생, 숨쉬는 존재를 편안하게 하는 삶

인우 / 사집과 (2학년)



안녕하세요.

운문사 학인 스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집반 인우입니다.

부처님께서 재가자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살생은 말 그대로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되는 빠알리어 빠나(pāṇa)는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알게 되면서 불살생을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숨 막히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숨을 쉬기 어려울까요? 몸이 아프거나 공기가 탁할 때처럼 물리적인 상황도 있지만, 마음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아, 숨 막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떠오릅니다. 담임선생님은 저희반 학생들을 자주 꾸짖고 벌을 주셨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긴장과 불안이 밀려왔고, 어느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긴장할 때, 불안할 때, 억압받거나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너무 슬플 때도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살생을 단순히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 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시하거나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말과 행동 또한 넓은 의미로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살아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게 숨쉬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살생을 “다른 존재를 숨 막히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살생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생각과 말, 먹고 입고 사용하고 버리는 모든 행동이 다른 생명이 숨쉬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필요한 물건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건들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버린 많은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번 철에 사집반 종두 소임을 맡고 있어 거의 매일 분리수거장에 갑니다. 갈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 양에 놀라고, 분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몇 해 전,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수많은 플라스틱과 비닐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소식이 낯설지 않을 만큼 자주 들려옵니다.

우리는 매일 종이를 씹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당 일 년에 쓰는 종이의 양이 30년생 나무 4그루 정도라고 하니 한 사람이 일년에 나무의 120년의 세월을 베어내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서 숲이 줄어들 겁니다. 숲은 수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은 누군가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또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살생을 “다른 존재를 숨 막히게 하지 않겠다”에서 더 나아가 “다른 존재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자 시절 후원에서 일을 하다가 뜨거운 물을 밖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감스님께서 혹시라도 뜨거운 물에 작은 생명들이 다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의 무심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까지 헤아리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발우공양을 할 때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조용히 음식을 먹는 시간,

세제 한 방울 없이 발우를 씻는 모습, 배고픈 아귀들에게 주기 위해 퇴수 물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들에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승복 한 벌을 수십 년 동안 입으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깊은 존경심이 생깁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자체가 불살생의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선배 스님들께서 몸소 보여 주신 자비의 실천은 모든 존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살생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다른 생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살피는 마음은 알아차림이며 깨어 있음이고 수행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공양할 때 하는 계송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수 많은 생명의 숨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더 넓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생명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더욱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존재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싫어하듯 다른 존재도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숨쉬고 싶듯 다른 존재도 편안하게 숨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에게도 그 시간은 똑같이 소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를 숨 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자기 몫의 숨을 쉴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해한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❹



통증으로 하는 마음공부

지현 / 사교과 (3학년)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통증이라는 것을 겪어보았을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순간 통증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통증을 경험하는 방식은 통증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가볍게 겪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을까?' 하며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통증은 통각과는 다릅니다. 통각은 몸에 유해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느끼게 되는 감각이라면, 통증은 그 통각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정서적 반응 즉, 주관적인 경험 총체를 가리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공부를 하는 우리가 오히려 통증에 관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증을 마음공부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해야 할 것은 통증에 대해 올바른 태도, 올바른 관점, 즉 정견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죠. 안 아프고 싶고, 어서 이 통증이 끝나서 몸이 편안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통증이 조만간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고 만성화되거나, 나아지는 기미 없이 심해지기만 한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몸의 괴로움일 뿐이었던 통증에 정신적 괴로움이 더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정신적 괴로움이 더 커질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요. 이는 통증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이 통증은 자신의 과거 행업과 지난 삶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었고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것을 겪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는 역연歷然합니다. 겪어내야 합니다. 『범구경』에서 이르기를 목갈라나 장로는 자신을 살해하려는 공격을 두 번은 피했지만 세 번째에는 “과거생에 저지른 강력한 업력을 느끼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단념해 버리는 마음이었을까요? 다 겪어내야 지나갈 것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통증 또한 그 업이 언제 어떻게 소진될지 모르니, 끝까지 다 겪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의연하게 정진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운 정견을 바탕으로 통증을 온전히 겪어내고자 마음먹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증에 주의를 뺏기지 않고 명상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고,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밖에 취하지 못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통증이 마음자리를 계속 차지하고서 번뇌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다른 대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호흡이나 진언, 화두와 같은 명상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자꾸 통증으로 향하는 마음을 묶어 매는 것이죠.

통증을 온전히 겪어내는 두 번째 방법은 통증 한 가운데서 쉬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깨어 있는 알아차림으로써 통증 안에 머무르며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몸의 편안함에 대한 습관적 집착과 안 아프려는 본능적인 의도를 알아차리고 놓아버려야겠지요. 그리고 통증이라고 대상화하여 나와 분리하고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 현상과 기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원래 하나니까요. 그 하나 됨 속에서 쉬는 것, 이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을 전통적으로 표현하면 지관止觀수행입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 집중과 관찰이죠. 방법론적으로는 다른 듯 보이는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겪어내야 할 통증을 온전히 겪어내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지혜를 불러일으켜 진리를 직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통증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수행의 방편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증을 온전히 겪어냄으로써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에 대한 자각입니다. 통증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심잉볼 소리가 종과 종채, 종을 치려는 의도,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 등의 조건이 임의로 합쳐져서 즉, 가합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통증 또한 조건 지어져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름표를 달지 않고 관찰하면 통증은 에너지의 움직임일 뿐이죠. 통증도, 통증이 일어나는 몸도, 아프다는 생각도, 아픈 게 싫은 마음도 전부 조건 지어져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데, '나'라는 것이 한 가운데 서서 그 모든 것에 개념을 붙이는 것입니다. 통증에 의해 고통받는 '나'라는 존재 또한 실체 없이 공한데 말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통증도, 다른 모든 것처럼,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못 잔다는 말 많이 하는데, 이미 잠들어서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통증을 느낄까요? 잠들어 있을 때 통증이 존재합니까? 저는 어느 날 밤 잠들기 직전에, 온종일 몸을 조이고 있던 통증이 툭 풀어지고 하나도 아프지 않던 짧은 찰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 곧바로 잠에 들었지요.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의식이 몽롱한 동안은 아프지 않다가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점차 아파졌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식을 해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통증을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통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현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있고 나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나서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진리는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는 그 통증이 사실 모든 중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몸에 나타난 괴롭고 불편한 현상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일체 중생들의 고통이 모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회적 적절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했고, 일을 할 때는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몸의 통증은 그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려 주었습니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시작한 마음공부를 통해서야 비로소 저는 이 통증에 담긴 저의 애씀과 무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에 담긴 일체 중생 모두의 애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애썼던 삶의 지난 순간들을 직간접적으로 함께했던 무한한 수의 중생들도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어 했고, 행복해질 줄 알고 공연한 애를 썼고, 그럼에도 행복해지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중생,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무릎으로, 누군가는 허리로, 누군가는 어깨로, 누군가는 온몸으로 이 고통을 애써왔을 겁니다. 통증은 그 애씀의 흔적이겠지요. 그래서 나의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곧 일체 중생의 고통이며, 또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연민심과 지혜로써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정리하자면, 통증은 일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주는 통로이자,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나려는 또 다른 애씀을 멈추고, 통증을 방편 삼아 모든 중생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정진해나가는 것이 몸 아픈 수행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요. ❹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

서현 / 한문불전대학원

산업혁명과 IT산업의 발전, 그리고 AI 시대에 이르기까지, 찰나찰나 변화하고 물질적 풍요와 정보의 다양함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무엇을 비울지 망설여 질 때가 많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가 마비되는 순간들을 겪게 된다. 가만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본다. “나는 무엇을 소유하려 하는가?” 나직이 질문해 본다. 그럴 때 부표처럼 떠오르는 책이 있다. 범정스님의 저서 『무소유』, 그중에서도 탁상시계에 관한 일화가 가장 인상 깊었다,

어느 날 새벽, 범정스님이 늘 그러하듯 어둠을 깨치고 법당으로 향해 예불을 드리는 사이, 스님의 고요한 처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누군가 스님의 방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탁상시계를 훔쳐 간 것이다. 시간을 확인하며 수행의 일과를 지키던 스님에게 시계는 쓰임새가 요긴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아끼던 물건을, 그것도 신성한 종교적 공간에서 도둑맞았다면 가장 먼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감히 스님의 방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다니’라는 패щем함이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아까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순리다.

그러나 스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스님은 시계를 잃어버린 순간, 도둑을 원



망하기에 앞서 스스로 깊이 되돌아보았다. ‘내게도 남이 탐낼 만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고백은 소유에 대한 스님의 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물건을 가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한다. 도둑이 든 것은 내 방에 ‘남의 마음을 흔들 만한 탐욕의 씨앗’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성찰이다. 스님은 시계의 상실을 통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쥐고 있던 미련과 집착의 무게를 먼저 발견한 것이다.

시계가 없어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님은 시내의 한 시계방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막힌 운명의 장난 같은 순간을 마주한다. 마침 한 사내가 시계방 주인과 흥정하며 중고 시계를 팔려고 내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몇 시간 전 스님의 방에서 사라진 바로 그 탁상시계였다.



그 순간 시계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이다. 사내는 시계를 사러 온 스님을 알아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서에 넘겨지거나,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도둑을 마주한 스님의 마음 속에도 순간적으로 수많은 선택지가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호되게 꾸짖어 버릇을 고쳐줄 수도 있었고, 내 물건이니 당장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이자 법의 논리다. 하지만 스님은 사내의 죄를 들추어 처벌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사내가 무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른 척해 준 것이다. 스님은 묵묵히 시계방 주인에게 제값을 다 지불하고 자신의 시계를 다시 사서 방으로 돌아왔다. 이 대목은 읽는 이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서늘한 깨달음을 준다. 만약 스님이 그 자리에서 사내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다면, 사내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분노와 수치심을 품고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사내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주었고, 그 사내는 말 없는 스님의 배려 속에서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양심의 가책과 마주했을 것이다.

법정스님은 이를 복기하며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 자신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남겼다. 타인을 미워하고 분노를 키우는 것은 내 안의 평온을 깨뜨리고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스님이 시계를 되산 행위는 분노라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맑은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결단이었다. 스님은 돈을 주고 물질을 산 것이 아니라, '용서의 시간'과 '내면의 평화'를 산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무소유는 종종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극단적 결핍'이나 '문명을 등진 불편한 삶'으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탁상시계 일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소유의 진짜 안목은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진정한 무소유란 물질을 혐오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준엄하게 분별하는 안목이며, 물건에 내 마음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단호한 상태를 뜻한다. 스님에게 탁상시계는 수행의 도구였을 뿐, 내 존재를 증명하는 훈장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잃어버렸을 때 분노하지 않았고, 되찾을 때도 소유욕이 아닌 사내를 향한 자비심이 먼저 움직일 수 있었다. 소유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의 중심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역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재정립해야 할 무소유의 본질이다.

오늘날 수행자들이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까?

첫째, '소유의 총량'을 줄이고 자발적 청빈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여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세상과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그것에 얼마나 얽매어 있었는가'를 먼저 관조하며 내면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해야 한다.

셋째, 타인의 허물을 마주했을 때 즉각적인 징벌과 낙인 대신,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침묵과 배려로 '양심의 자리'를 남겨두는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범정스님이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스님의 오두막 책상 위에서 째깍거리던 탁상시계의 소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다. 비우고 버릴 때 비로소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무소유의 역설을 기억하자. 물질의 노예가 아닌 존재의 주인으로서 나의 일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범정스님이 걸어가신 그 자유로운 수행자의 길에 한 걸음 가까워질 것이다. ☸

진정한 행복은 지금부터 운문사 바라밀출가학교, 나를 만나는 여정

자윤 / 운문사 포교기획실장



솔바람길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딛습니다.
발걸음마다 마음속에는 조용한 물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고, 부처님게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출가라는 위대한 출발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체험하고자 하는 설렘을 안고, 참가자들은 오랜 수행과 정진의 전통이 이어져 온 청정도량 운문사에 모였습니다. 산사의 고요한 일과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마음을 맑히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바라밀출가학교에는 13명의 참가자가 함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6박 7일 동안 예불, 발우공양, 좌선, 기도, 운력, 강의,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수행자의 하루를 가까이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산사의 일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다듬는 수행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 새벽 눈을 떠 기상하는 것부터 참가자들에게는 첫 수행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고요한 도량을 따라 예불하러 가는 발걸음은 낯설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예불의 절차와 몸짓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낮추며 예경의 의미를 조금

씩 배워 갔습니다. 발우공양 발우를 펴고 거두는 과정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음식과 인연에 대한 감사, 절제와 배려의 마음을 익혔습니다. 한 끼의 공양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하는 공동 수행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좌선과 기도 시간에는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켰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흠어진 마음을 살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님과의 대화 시간은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출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고, 스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수행자의 삶을 보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소감 속에서도 이번 출가학교가 남긴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가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니 출가에 대한 생각도 크지 않았는데, 직접 곁에서 보고 수행해 보니 출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과 함께 청풍료에서 발우공양을 하고 차례법문을 들은 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법문하시는 학인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교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 출가자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번 출가학교에서 지낸 모든 경험을 제가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 주위와 나누며 참된 수행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소회所懷를 밝히며 이번 시간을 자신의 삶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바라밀출가학교를 통해 참가자들은 출가가 멀고 낯선 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세웠고, 6박 7일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앞으로의 삶을 밝혀 줄 작은 수행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이번 첫걸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출가의 의미와 기쁨을 전하고 바라밀 출가학교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바로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자기중심적 다양성을 뛰어넘어 공감과 이해의 시대로 도약하기

공감은 깊은 자아 탐구 끝에 얻어지는 값진 결실이고, 공감은 나아가 개인 간의 소통을 이끌며 이타적 형태로 사회에 환원된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개인들이 늘어나고, 각자의 다름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준비될 때 비로소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건강한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현 시대는 가히 '다양성의 용광로'라 불릴 만하다. 과거 사회를 규정하던 국가, 계급, 인종, 성별이라는 거대 담론은 이제 개인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거친 분류법이 되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지, 어떤 미학적 취향을 가졌는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자신을 훨씬 더 세밀하게 규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과 다른 타인의 모습이나 의견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는 표면적으로 자유롭고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획일화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취향과 권리가 절대 가치로 추앙받으면서 많은 이들이 '나'는 마땅히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도, 내 결의 타인 역시 정확히 그만큼의 무게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그 원인으로 '뉴미디어의 등장과 성장'이 대두 되고 있다. 유튜브, 틱톡 등의 SNS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주로 보는 주제에 맞는 정보들만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이는 인터넷 정보 가공업자 엘리 프레이저(Eli Pariser)가 2011년에 제안한 개념인 '필터 버블(Filter Bubble)'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만의 문화적·이념적 장막에 갇혀 편향된 정보만 소비하게 되는 현상이다. 뉴미디어는 결국 인간 내면의 확증편향 심리를 극대화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지적 에너지를

를 감소시키며, 현대인이 자기중심적 사고 체계를 확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자아 탐구'의 회복이다. 진정한 자아 성찰은 단순히 나의 취향을 나열하는 피상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감이야말로 깊은 자아 탐구 끝에 얻어지는 값진 결실이고, 공감은 나아가 개인 간의 소통을 이끌며 이타적 형태로 사회에 환원된다.

불교에서는 이해와 공감을 동체대비同體大悲라는 말로 표현한다. 『유마경』 「문질품」에는 유마거사가 병에 걸려 몸져 눕자 문수보살이 문병을 가게 된다. 문수가 어찌하여 병이 났는가 질문하자 유마거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모든 중생이 아프므로 나도 아픕니다. 만약 모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곧 나을 것입니다. (以一切衆生病, 是以我病 若一切衆生病滅, 我病亦滅)”

유마거사는 고통받는 중생에게 갖는 일반적인 측은지심을 뛰어넘어,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대승 보살의 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서 삼종자비三種慈悲로 설명했다. 모든 중생을 나의 부모, 형제, 자식처럼 바라보는 중생연자비衆生緣慈悲, 중생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고, 오직 오온五蘊과 인연에 의해 임시로 결합해 있는 상태임을 깨닫고 베푸는 법연자비法緣慈悲, 그리고 조건도 없고 걸림도 없는 최상의 단계이자 오직 부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무연자비無緣慈悲가 바로 이것이다. 삼종의 자비심을 닦는 행을 통해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는 시선의 해상도를 높여야만 세분화·개인화가 극심해지는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단절과 물이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적 실천 원리로 사섭법四攝法과 자비명상의 대중화를 제시하려 한다. 보시섭布施攝, 애어섭愛語攝, 이행섭利行攝, 동사섭同事攝의 실천은 동체대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훌륭한 행동 지침이다. 또한, 나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이웃과 적대적인 대상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넓혀가는 명상 훈련은 동체대비의 실행을 꾸준히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개인들이 늘어나고, 각자의 다름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준비될 때 비로소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건강한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❹



▲ 봄철 신중기도 입재



▲ 처진 소나무 막걸리 주기



▲ 마곡사 상주교수연찬회 및 학인수행프로그램



▲ 구미 법성사 불자회 장학금 전달식



▲ 하안거포살

- 3월 26일 신입생 방부 및 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신중기도 입재가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8일 신중기도 회향과 소금 물기가 있었습니다.
- 3월 29일 구미 법성사 불자회에서 학인스님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4월 7일 치문반 사리암 및 문수선원 참배가 있었습니다.
- 4월 19일 음력 삼월 삼짇날 소나무 막걸리 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27일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서 대중 스님들의 자비탁발이 있었습니다.
- 5월 2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기원법회에 대중 스님들이 참여했습니다.
- 5월 5일 청암사에서 진행된 교우회에 강사스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5월 11일 31일간 봄방학이 있었습니다.
- 5월 12일 ~19일 7박 8일 동안 화엄반 스님들 9명이 백천장학재단 주최로 대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5월 15일 은광 주지스님께서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6월 11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3일 동문회가 주최한 <운문사 마음ON 원데이 명상>이 진행되었습니다.
- 6월 17일 ~25일 30시간 동안 진행된 혜주스님의 선명상 특강이 있었습니다.
- 6월 19일 단오산행이 있었습니다.
- 6월 20일 ~21일 경주 황룡원에서 개최된 동련 제80차 전국 지도자연수회에 영휴 교부 스님과 학인스님들이 참가했습니다.
- 6월 22일 일진 율주스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尼회 제3대 원로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6월 27일 ~28일 마곡사에서 상주교수연찬회 및 학인수행프로그램이 1박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 6월 29일 ~7월 5일 운문사 바라밀 출가학교가 6박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 7월 2일 하안거 결계포살이 영덕 강사스님을 단주로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7월 3일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7월 8일 청풍료에서 여름철 법공양이 있었습니다.
- 7월 10일 청풍료에서 여름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 7월 14일 ~15일 화엄반 싱잉볼 특강이 있었습니다.
- 7월 25일 ~26일 여름불교학교가 있었습니다.
- 8월 5일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 주신 분

• 고수정 • 김명원 • 김성옥 • 김현주 • 무여거사 • 성덕수
• 윤화숙 • 이대유 • 이병철 • 이정숙 • 재단법인 중도 • 정연식
• 정해옥 • 조서영 • 최오현 • 최희영 • 하옥희 • 한미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운문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시오.
①주소 ②수령인 ③부수 ☎ 010-7403-7118

* 주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기존 정기구독자 분들도 편집실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아미타극락구품도



운문사 아미타극락구품도(1883년, 삼베에 채색, 182×188.5cm)

운문사 역사문화관 범고창신전에서 전시 중인
운문사 <아미타극락구품도>는 극락세계의 구품연못과
왕생자를 부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 * 그동안 계간지 『운문』을 아껴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2026년부터는 반년간지 『운문』으로 개편하여 1년에 두 번, 상반기호(8월 예정)와 하반기호(2월 예정)로 찾아뵙겠습니다.
- * 운문지 및 운문사 소식은 운문사홈페이지(<http://www.unmunsa.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 372-8800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 나옹 혜근 -

雲門寺僧伽大學

• 운문지 발행에 사용된 종이는 100% 친환경 재생지입니다.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반연간] 여름호·통권 제175호·2026년 7월 31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영주 / 편집위원·영주, 지현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영주 / 편집디자인·디자인마루 (053) 426-3395